

삶을 담은 시, 길 위의 노래...담양 숲속 흐르는 소리들

오는 25일 산아래 詩 담양 연우책방 인문학콘서트
‘버들 국수 삶는 시인, 노래하는 스님 출가 이야기’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와 노래, 불심과 인문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무대가 담양 숲속 책방에서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집전문독립서점 산아래 詩 담양 연우책방(담양읍 깊은실길 84-73)에서 인문학 콘서트 ‘버들국수 삶는 시인, 노래하는 스님 출가 이야기’가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연우책방의 ‘산아래 서 詩 누리기’ 두 번째 행사로, 담양의 인문지형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문화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대에는 시인 송미령, 수행자 수안 스님, 가수 정상록이 함께 오른다. 여기에 시인 정연우가 대담을 맡아 시와 수행, 노래와 삶의 접점을 짚는다.
작품 ‘얇은뱅이 꽃’으로 잘 알려진 송미령 시인은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를 패내며 자연과 존재의 여



정연우 시인

백을 담담히 시로 써내려간 작가다. 그녀는 우포 늪에서 버들국수를 삶는 일상을 통해, 할머니의 기억과 자연의 순환을 시로 전한다. 삶의 낮은 곳에 머무는 이 시인은 이번 무대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의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수안 스님은 2014년 가수로 데뷔해 노래로 대중과 소통해 온 독특한 이력의 수행자다.

KBS ‘아침마당’ 꿈의 무대에 출연해 김광석의 노래를 불러 우승한 그는 광주 꿈키움청 소년대안학교 교사, 광주 불교방송 진행자, 백양사 포교국장 등을 거쳐 현재는 영암 지장사 주지로 있다. 단순한 독창이나 낭송을 넘어 진심 어린 고백을 담은 노래로 무대에 선다.



사진 왼쪽부터 송미령 시인, 수안 스님, 가수 정상록

여기에 감성적인 통기타 연주로 잘 알려진 정상록 가수가 ‘넌 먼 곳에’를 라이브로 들려주며 무대의 온기를 더한다.
시인 정연우는 경영학 박사이자 이 책방의 대표로, 이날 사회자로 나서 관객과 함께 시와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은 대화를 나눈다.
행사가 열리는 ‘산아래 詩 연우책방’은 시집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독립책방이다.
대구에서 2년 첫 문을 연 ‘산아래 詩’는 현재 화순, 마포, 기장, 양평, 봉화 등지에도 문을 열며 시와 독자의 일상적 접점을 확대해왔다.



담양 대규모 복합예술단지 소아르페 내에 자리한 ‘산아래 詩 연우책방’ 전경.

이번 담양점은 대규모 복합예술단지 ‘소아르페’ 내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달 21일 개점 기념과 함께 정연우 시인 시집 ‘만약 당신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70여 명의 독자와 지역 시인들이 모인 바 있다. 행사 마지막 순서였던 광장 공연에서는 춤꾼 서승아의 지신무 퍼포먼스가 정 시인의 어머니에 대한 헌정시와 맞물려 큰 감동을 남기기도 했다.
정연우 시인은 “연우책방은 시집만을 파는 공

간이 아니라 시가 생활의 언어로 살아 숨 쉬는 삶과 치유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독자와 예술가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연우책방을 비롯해 인문 살롱 담양에 북, 복합문화공간 터5, 정연우발효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10-4624-0131) 문의.
/최명진 기자

‘료지 이케다’ 작품 ‘산산기어’와 만나다

ACC재단, 전시 협업 상품 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의류 브랜드 ‘산산기어’와 함께 ACC 개관 10주년 기념 ‘료지 이케다’ 특별전 문화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전시는 2015년 ACC 개관 당시 함께했던 ‘료지 이케다’를 10년 만에 다시 초청해 1900년대부터 이어진 그의 전자음악과 데이터 실험의 미학적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이를 기념해 재단은 미래지향적 미감과 기술적 요소를 의류에 담아내는 브랜드 산산기어(SAN SAN GEAR)와 함께 료지 이케다의 작품을 반영한 티셔츠와 모자 등 협업 상품을 개발했다.

〈사진〉

‘산산기어’는 아식스, 푸마, 삼성라이온즈 야구단 등과의 협업으로 독보적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2개국 편지 매장에 입점하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상품 개발은 ‘료지 이케다’ 전시 작품 중 하나인 ‘데이터 그램(data.gram)’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았다. 산산기어는 미디어 작품의 특성을 티셔츠와 모자 등 의류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독특한 관점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특히 ‘데이터 그램(data.gram) 01 하드론 콜리전스(hadron collisions)’ 작품의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데이터 이미지를 평면적 매체의 의복으로 풀어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꾀했다.



작품 이미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티셔츠에 인쇄하고, 모자에는 자수를 놓은 직조 상표를 부착해 작품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료지 이케다’ 전시 협업 상품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과 들락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산산기어 누리집과 합점 매장, 더현대 매장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다스름·청음·득음’...정통 정악의 미학을 만나다

오는 20일 북구문화센터

광주 고유의 풍류 정신이 고결한 전통음악 무대로 되살아난다. 오는 20일 오후 5시 북구문화센터에서 광주향제풍류 공연 ‘다스름(治音)·청음(聽音)·득음(得音)’이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광주향제풍류보존회가 주최하는 자리로, 정통 정악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다스름·청음·득음’이라는 세 단계는 각각 소리(治音)와 마음을 다스리는 준비, 음악을 온전히 듣는 수음,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을 의미

한다. 이를 공연 구조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내면 성찰의 경험을 전한다.
이번 무대는 고영란 광주향제풍류보존회 회장을 중심으로 기획자 신선민, 음악감독 신경환, 사회자 이용식(전남대 국악학과 이론 교수) 등 전통음악계 주요 인사가 참여해 완성도를 더한다.

/최명진 기자

국악 명장 김광복, 예술인생 60년 기념공연 성료

국립국악원서창작 피리산조 등 선보

국악계 원로 김광복(사진)의 예술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16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김광복이 직접 창작한 ‘김광복류 피리산조’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함께 꾸민 민속악 무대가 어우러지며 전통음악의 깊이를 전했다.
피리, 해금, 대금, 태평소 등 전통악기의 다채로운 향연 속에서 관객들은 그의 60년 음악 여정이 담긴 울림을 마주했다. 특히 김광복류 피리산조는 피리의 전통주법을 바탕으로 창작된 독자적 산조로, 입술주법과 서치기, 조임 등 고난도 기법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피리 고유의 미감을 집약적으로 드러냈다.
공연 후반부에는 창작과 민속을 넘나들며 전통음악의 경계를 확장해온 김광복의 음악세계를 되짚는 무대가 이어졌다.
김광복은 여섯 살 무렵 부친에게 곁 피리를 배우며 음악에 입문한 후, 국악예술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전남국악관현악단 창단을 비롯해 지역 국악

진흥에 힘써왔으며, 5·18민중항쟁 기념음악제, 서울올림픽, 몽골 수교 공연 등 국내외를 무대로 전통음악의 대중화와 외연 확장에 기여해 왔다.
현재 그는 빛고을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CBS Media Group